

원주시, 다음 달 2일부터 소상 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원주시는 고금리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대상 대출은 신청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천만 원이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다. 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3%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연계 추진되는 협약 보증 지원은 원주시 협약 기관인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한도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보증 발행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2월 2일부터 융자금 총액(150억 원) 및 협약 보증 규모 총액(75억 원) 소진 시까지 시정 9층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진행된다.

신청서 서식, 소상공인 확인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 자료 등의 구비서류 및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등 사전 절차는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업무 협약

평창군보건의료원(원장 박건희)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임무부총장 백순규)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자 1월 28일 비대면으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창군보건의료원 내 미충족 진료과에 대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진의 파견 진료 ▲건강 증진 관련 연구 및 교육사업 수행 ▲상호 환자이의 및 회송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추진 등이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기관 보안 사항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및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의료진 부족이나 감염병 대유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역량 강화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을 넘어 국방 경제로… 7대 미래산업 박차

전국 최초 국방경제 추진단 조직, 국방벤처센터 개소로 참여기업 수 3배 확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월 29일(목)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강원형 국방경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방경제를 도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간 도는 전국 최초로 국방경제 추진단을 조직하고 국방벤처센터를 개소했으며 참여기업 수도 2024년 14개에서 2025년 44개로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지원 예산도 2024년 13억 원에서 2025년 20억 원으로 160%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강원도가 7대 미래산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방위산업을 포함한 상위개념인 국방경제에 대한 설명과 그 동안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으며 강원도형 국방경제 모델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 국방기술품질원 방호시험장,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시스템실증센터 등 국책연구기관 유치 추진경과 △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준비 △ 도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 △ 도내 기업의 국방 상용물

자 입점 지원 및 판로확대 △ 군부대와의 협력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방위산업협의회'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제2기 협의회는 지난 1기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군 출신, 방산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맡아 국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부위원장으로서는 1기에 이어 최영철 위원이 위촉되어 1기와의 연속성을 이어갔다.

홍천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최영철 부위원장은 풍부한 군 경력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국방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1기 위원회의 주요 성과로는 △ 강원국방벤처센터 유치 지원 △ 국방방호시험장 등 국가 국방기관 유치 방안 제안 △ 군 급식 민간위탁 기조에 따른 도 차원의 적극 대응 주

문 등이 있다.

이번 2기 협의회는 강원도가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자문과 민·관·군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5년 간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기반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남·창원, 대전, 경북·구미 등 3개소가 구축되었다.

강원도는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주력 분야를 선정할 후 내년 도의 미래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강원도형 국방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은 방위산업 협의회 2기가 출범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국방경제 1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보다 '국방도 경제'라는 개념으로 출발했고, 이제는 인프라도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월에서는 텅스텐 채굴까지 시작한 만큼 강원도만의 국방경제 산업을 제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강릉의 진짜 매력 “눈꽃이 길이 되는 곳”

강릉시는 2월의 테마로 눈꽃 트레킹과 고원설경을, 2월의 추천여행지로 대관령 옛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은 동해 바다와 산악 지형을 동시에 품은 도시로, 겨울철에는 해안과 내륙의 풍경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월은 고지대 설경이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로, 강릉 겨울 관광의 본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이에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를 맞아 겨울 자연환경의 매력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관령 옛길』을 2월 추천여행지로 지정했다.

대관령 옛길은 과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던 역사적인 길로, 현재는 울창한 숲과 완만한 산길이 잘 보존된 걷기 여행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리 잡고 있다.

겨울철에는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고, 고원 특유의 탁 트인 설경이 어우러져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겨울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히 대관령 옛길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동선이 안정적이어서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겨울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눈꽃 트레킹을 마친 뒤에는 겨울 강릉의 식문화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2월 여행의 중요한 매력이다.

겨울 강릉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쫄면의 식감의 감자옹심이, 강릉 특유의 얼큰한 맛이 살아 있는 장갑국수, 그리고 담백한 국물의 해물칼국수가 있다. 이들 음식은 특히 겨울철에 선호도가 높아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동해시, ‘시민 소통·공감 간담회’ 추진

동해시가 민생현장에서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소통·공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1월 29일(목) 천곡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2월 4일(수)까지 5일간 진행되며,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10개 동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현장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자리는 민선 8기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시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지역별 현안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각 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

들과 심도 있는 대화와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각 동의 생활밀착형 현안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동별로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채시봉 행정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그동안의 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구군, 고향사랑기부제 ‘기적의 성장’ 있다

양구군이 지난 한 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기부 혜택을 대폭 강화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며 기부 열기를 이어나간다.

먼저 2월 2일부터 '민간플랫폼 설 설 이벤트'를 진행한다.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양구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300명에게는 답례품과 함께 1만 원 상당의 네이버 포인트를 추가로 증정한다.

현장 홍보 활동도 본격화한다.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3일 서울 강남구청 △2월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재춘양구군민회 △2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달빛카페를 차례로 방문해 '찾아가는 기부 참여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행사에서는 양구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과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현장에서 직

접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양구군 캐릭터 '배꼬비'가 담긴 보조배터리 또는 데일리 매트 중 1개를 추가 기증품으로 증정해 따뜻한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20만 원 기부 시 14만4천 원의 세액공제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합쳐 총 20만4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양구군의 이벤트 혜택까지 더해지면 기부자는 본인인 낸 금액보다 큰 실질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탁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체감형 사업에 투영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부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시, ‘글로벌 AI 선도도시 도약’ 위해 서울AI재단과 맞손

시, 재단이 개발한 AI 정책모델 현장 실증(Test-bed) 역할 맡는다



속초시가 서울AI재단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속초시는 29일, 서울AI재단을 방문해 재단 측과 '관광·안전 분야 AI·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속초시의 생생한 현장 행정 데이터와 서울AI재단의 최첨단 AI 기술력을 결합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속초시, 서울 AI 정책의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속초시는 서울AI재단이 개발한 AI 정책모델의 현장 실증 거점(Test-bed)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관광 수요 및 이동·체류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 정책 수립 ▲관광지 다중운집 안전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 지표 개발 ▲AI 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등을 공동 추진한다.

■ '데이터 행정 우수기관'의 저력, AI로 완성한다

속초시는 이미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

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씨어 흠백쇼'의 경제 파급효과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인구 기반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 왔다.

또한, 전 직원 챗GPT 교육과 '속초 AI 경진대회(SOKCHO AI 챌린지)' 등을 통해 조직 내부의 AI 활용 역량을 탄탄하게 다져온 만큼, 이번 서울AI재단과의 협업은 속초시의 스마트 행정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병선 속초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AI 혁신 보여줄 것"

이병선 속초시장은 협약식에서 "이제 행정은 막연한 경험이 아닌 정교한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며, "속초시의 현장 데이터와 서울AI재단이 만나 만들어낼 시너지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속초시에서 검증된 AI 성공 모델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